

## 수퍼바이저가 성소수자 상담 진행에 대한 상담 교육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

이 아 라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 부교수 / BK4program

이 주 영<sup>†</sup>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 부교수


본 연구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수퍼바이저들이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소수자 상담 교육 경험이 있는 상담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소수자 상담 교육에서 수퍼바이저들은 교육생이 교육에 대해 낮설어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해 부담감을 경험할 때, 교육에 활용할 상담 이론과 교육자료가 부족할 때, 그리고 관련 수퍼바이저 훈련이 부족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퍼바이저들은 교육생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자신만의 교육자료를 개발하며, 교육과정에서의 규칙을 명료화하고, 교육생의 경험을 타당화 하는 과정을 통해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울뿐만 아니라 교육자 스스로의 가치관과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수퍼바이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소수자 상담, 성소수자 상담 교육, 수퍼비전, 수퍼바이저 어려움, 수퍼바이저 대처

\*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631).

† 교신저자 : 이주영,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Tel : 031-8005-3361, E-mail : [jylee@dankook.ac.kr](mailto:jylee@dankook.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상담자가 어떤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는 상담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상담 성과를 도출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상담자의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하기도 하고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 탐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상담에 있어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담자의 다문화상담 역량이나 사회정의 옹호상담 역량과 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상담의 경우,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내담자의 특성이나 내담자와 상담자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에 김주찬(2016)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전문상담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퍼비전에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탈북민 전문상담사들에게 문화적 민감성이나 다문화적 상담기술처럼 전반적인 다문화적 역량도 요구되나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문화적 이슈를 이해하는 역량처럼 특정 집단에 속한 내담자 고유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상담자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등(2014)도 내담자를 이해함에 있어 문화적 맥락 고려가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동성애 관련 상담에 있어 동성애자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준호 등(2014)은 Miller et al. (2012)이 제안한 동성애 상담 역량을 위한 체계적 훈련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상담자들을 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소수집단에 속한 내담자를 위

한 상담자 교육 및 훈련에서 전반적 다문화상담 및 사회정의 옹호상담 역량뿐만 아니라 특정 소수집단을 위한 상담에 대해 별도의 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소수집단에 소속된 개인들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주은선, 이현정, 2010). 특히,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비성소수자들에 비해 편견과 차별에 더 많이 노출되므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Adams et al., 2013).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정서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높고(IOM, 2011), 약물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으며(King et al., 2008), 자살과 관련된 이슈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다(House et al., 2011). 또한 상담에 대한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Andrew et al., 201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상담자들은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아 준비된 상태로 현장에 나가야 한다. 하지만 성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는 서양의 경우에도 상담자들은 실제 성소수자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Bidell, & Whitman, 2013), 성소수자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혐오적 태도나 편견으로 인해 상담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신하기도 한다(Palma, & Stanley, 2002; Rutter et al., 2008). 국내 상담자들의 경우에는 성소수자 상담 관련 정보를 얻거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빈약하여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성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이주영 등, 2020). 이는 성소수자 내담자 대상 상담에 있어서도 상담자들에게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이 요구되며, 특히 상담

자로 활동하면서 내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교육이나 슈퍼비전 등의 전문적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 성소수자 상담을 하기 위해 상담자가 갖춰야 할 별도의 역량이 존재한다. 국외의 경우, 여러 정신 건강 전문가 조직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역량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ex.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2015; Associ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Counseling, 2010, 2013). 전문가 집단마다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들은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1)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갖는 편견과 낙인을 자각하는 것, (2) 건강적 측면이나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성소수자들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아는 것, (3) 전문가 윤리, 가이드라인, 기준 등을 기반으로 하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임상적 기술이 포함된다(Bidell, & Stepleman, 2017). 이는 지식, 기술, 태도적 측면에서 성소수자 상담을 위해 별도로 습득하고 훈련받아야 할 역량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한국상담심리학회 산하 LGBT 연구회에서 성소수자 상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소수자 내담자 상담 역량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한 연구(이주영 등, 2020)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역량 척도는 성소수자 상담을 위해 상담자가 주로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안내함으로써 상담자 교육의 핵심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하지만 성소수자 상담 역량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을 함에 있어 상담자들은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나 그 중 다루기

힘들어하는 어려움으로 가치관의 혼란에 대해 말한다. 가치관의 혼란은 성소수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도 다루기 어려워하며, 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담자를 돕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전통적인 종교 단체에서 성소수자를 부도덕하거나 죄가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과 관련되는데, 상담자와 상담자 교육자들은 이로 인해 종교적 신념과 전문적 가치 사이의 불일치와 긴장을 경험한다(Bowers et al., 2010). ACA(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의 경우, 예비 상담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 성소수자에 대한 전통적인 종교적 관점을 갖는 학생들이 이를 잘 다룰 수 있게 가르치도록 요구하고 있음(ACA, 2005)에도 여전히 상담 교육자들은 이런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전문가적 책임에 조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Whitman, & Bidell, 2014). 게다가 Miller와 동료들(2007)이 상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 장면에서 상담 교육자들은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는 편견적 태도나 차별적 행동을 잘 보이지 않으나 성적 지향과 사회 계층에 대해서는 편견적 태도나 차별적 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 교육자들에게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다루는 것은 어려운 문제임을 암시하며, 이로 인해 교육자들은 예비 상담자나 상담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혼란이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소수자 상담을 교육하고 훈련함에 있어 상담 교육자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잘 다루는 것이 교육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효과적인 성소수자 상담 교육과 훈련을 위해

서는 교육과 훈련 시 어떤 내용을 다루며,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국외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가이드라인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Whitman, & Bidell, 2014; Grunhaus et al., 2018). 국내에서도 박준호 등(2014)이 Miller et al.(2012)의 훈련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교육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 상담 교육자들의 경험에 기반을 두지는 않고 있어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며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 요구가 높아져 이를 위한 상담자 교육이 요구됨에도 연구나 현장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된 교육에서의 슈퍼바이저 경험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 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강의 등과 함께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슈퍼비전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슈퍼비전은 상담자 교육 및 훈련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상담 지식과 실천을 통합시키는 과정이다(Bernard, & Goodyear, 2009). 이에 상담자들은 사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의나 워크숍 등의 교육 방법뿐 아니라 슈퍼비전이라는 교육 방법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고자 한다. 따라서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된 슈퍼바이저의 교육 및 훈련 경험에 대해 탐구할 때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강의뿐만 아니라 상담 진행 과정에 도움을 주는 슈퍼비전 경험까지 포함시켜야 상담 교육자들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저들이 슈퍼비전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상담 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에 대처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를 교육하는 슈퍼바이저들이 교육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인적, 물리적 대처가 가능한지 시사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소수자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를 교육하는 슈퍼바이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성소수자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를 교육하는 슈퍼바이저들은 경험하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방 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소수자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문가 8명이다. 구체적으로 상담 교육이란, 상담자/예비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특강, 세미나 등에서 강의 형식의 교육을 한 경험과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그룹 슈퍼비전 형식의 교육을 한 경험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2명은 성소수자 상담 전문 기관인 사설 상담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6명은 상담 관련 전공 대학 교수이다. 연구참여자의 나이는 만 33세부터 52세까지로, 평균 만 41.6세였고, 이들의 지정 성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정보

연번	지정 성별	나이	보유 자격증	상담 경력 (년)	수퍼 비전 경력 (년)	강의 등 교육 경력 (년)	성소수자 상담 경력 (사례, 회기)	성소수자 상담 교육경력 (시간)	성소수자 상담 수퍼비전 경력 (횟수)
1	여	52	상담심리사 2급	9	0	7	약 40사례, 약 310회	40시간(강의)	5
2	여	44	상담심리사 1급	20	13	8	10사례, 50회기	40시간(워크숍, 세미나, 강의)	20
3	여	42	상담심리사 1급	18	10	13	5사례, 80회기	105시간(강의)	-
4	남	33	상담심리사 1급	6.5	1	4.5	100사례, 2000회기	10시간(강의, 워크숍, 사례토론모임)	4
5	여	40	상담심리사 1급	15	6	6	20사례, 약 100회기	24시간(강의)	-
6	여	38	전문상담사 1급	16	10	5	50사례	25시간(강의, 발표, 특강)	-
7	여	44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정교사	17	11	10	3사례, 26회기	5시간(강의)	10
8	여	40	Certification of APPIC Internship	14	8	8	대략 25사례, 대략 200회기	20시간 (다문화상담 교육, 트레이닝 등)	-

별은 남성 1명, 여성 8명이었다. 상담 경력은 9년부터 20년까지로 평균 14.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담자 교육 경험은 평균 7.7년이었다. 성소수자를 상담한 경험은 최소 26회기에서 최대 2,000회기까지였고,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를 교육한 경험은 최소 18시간에서 최대 105시간까지였다.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연구자

본 연구의 연구팀은 두 명의 연구자로 구성

되었다. 연구자들은 대학교 상담 관련 학과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모두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모두 7회 이상의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고, 각각 5회 이상의 질적 연구 자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의 평균 상담 경력은 16년이며, 모두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성소수자 상담 슈퍼비전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3건 이상의 성소수자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접 질문지**

성소수자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슈퍼바이저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슈퍼비전 및 상담 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상담자 교육과 관련한 대주제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으로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상담자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는지와 경험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접 질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2와 같다.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성소수자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상담전문가이다. 상담전문가에 대한 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소연 등(2014)과 소수연, 장성숙(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학위와 상담

자교육 및 훈련 경험을 함께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둘째, 한국상담학회 혹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1급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자, 셋째, 성소수자 내담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고, 성소수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수업, 특강, 슈퍼비전, 워크숍 포함)한 경험이 있는 자, 넷째, 연구 방법과 과정,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는 자.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학회 전문가 단체 커뮤니티 방에 연구 공고문을 게시하고, 온라인 등에서 성소수자 친화 상담기관임을 밝힌 상담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자들에게 연구 홍보를 부탁하였다. 이에 더해 인터뷰 참가자에게 연구 기준에 해당되는 참여자를 소개받는 눈팅이 표집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모두 8명이다.

**자료 수집**

심층 인터뷰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구에 대한 설명문과 면접질문지를

표 2. 면접 질문지

대주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소수자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을 교육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습니다습니까?</li> </ul>
상담자 교육에서 경험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자 교육과정(교육을 준비하는 과정, 교육 내용, 교육 진행 과정, 교육생의 반응과 특성 등)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li> <li>상담자 교육과정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li> </ul>
상담자 교육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소수자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를 교육하는 데 있어 경험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다습니까?</li> <li>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까?</li> <li>교육생과 관련하여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까?</li> <li>개인 내적 작업을 통해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까?</li> <li>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까?</li> </ul>

전송하였다. 연구 설명문을 읽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연구참여 확정의를 표시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과 면접 날짜 및 시간을 논의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1:1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면접은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와 인적사항은 연구 참여자에게 메일로 보내 작성한 후 다시 연구자에게 보내도록 요청하였다. 미리 전달한 면접 질문지에 따라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상담자 강의 교육과 수퍼비전 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한 어려움과 대처 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평균 70분 정도 소요되었고, 화상회의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화/녹음되었다. 녹음된 내용은 모두 축어록으로 작성되었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수퍼바이저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을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에서 Colaizzi(1978)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Descriptive phenomenology)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방법은 개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Colaizzi(1978)가 제안한 자료 분석 절차를 따랐다. 먼저, 전체적인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

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전사자료를 반복해서 정독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추출하고, 발견한 의미 있는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발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주제로 결집한 후,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체험에 대한 기술을 보다 명료한 기술로 전환하였다.

### 연구의 윤리적 고려와 타당도 확보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절차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들은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읽고, 성소수자 상담 경험과 성소수자 수퍼비전 경험을 나누었다. 또한 수퍼바이저나 상담자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지식과 태도를 논의하였다. 연구의 전체 진행과정은 G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받았고(심의번호: GIRB-G21-Y-0023), 승인된 내용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인터뷰 진행에서부터 결과 분석까지 일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단독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석 결과를 충분히 합의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논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감수받았다. 감수자는 질적연구를 10회 이상 진행하고, 다문화상담과 관련된 15년 이상의 상담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상담심리전문가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감수는 연구 주제 및 범주의 적절성, 연구 결과의 타당성, 연구 결과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는 크게 2가지 주제, 즉 성소수자 상담 교육에서 경험했던 어려운 점과 성소수자 상담 교육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대처로 구분되었다. 또한 경험한 어려움은 각각 슈퍼바이저, 교육생, 물리적 환경 측면으로, 어려움에 대한 대처는 슈퍼바이저, 교육생, 교육 내용의 측면으로 분석되었다. 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슈퍼바이저는 본 연구의 대상자로 강의나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상담 교육을 진행하거나 슈퍼비전의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한 경우를 통칭하여 상담 교육을 제공한 상담전문가로 정의하였다. 교육생은 상담 전문가들에 의해 교육을 받은 대상, 즉 성소수자 상담 강의나 워크숍에 참여한 수강생과 성소수자 상담 슈퍼비전을 받은 슈퍼바이저를 포함한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 성소수자 상담 교육에서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어려움

성소수자 상담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는 슈퍼바이저들이 강의와 슈퍼비전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크게 3가지 영역, 상담 교육을 받은 교육생과 관련된 영역, 상담 교육을 제공한 슈퍼바이저와 관련된 영역, 상담 교육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영역과 관련된 범주와 주제결집은 교육생관련 영역에서 5개 범주, 14개 주제결집, 슈퍼바이저관련 영역에서 4개 범주,

9개 주제결집, 물리적 환경관련 영역에서 4개 범주, 6개 주제결집으로 분석되었다. 각 범주와 주제결집, 그리고 주제의 대표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 교육생의 잘못된 상담개입

슈퍼바이저들은 교육생들이 성소수자 상담 사례를 다루는데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상담개입을 하였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이 언급한 상담개입에는 교육생인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담자의 성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전환치료의 가능성을 주장한다거나 내담자의 성정체성을 바꿔주려는 개입을 시도하는 것, 상담의 목표와 방향을 성소수자 정체성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의 내용이 사례개념화에 포함되어 있는 것, 상담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을 내담자에게 강요하는 개입 등이 포함되었다. 슈퍼바이저들은 교육생들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학회의 윤리적 가치관과 다르게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 당황스러움과 교육의 내용 전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으신거죠.. 아직 청소년이나 그런 애들은 이걸 확실히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때부터 잘 상담하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어른이 되어야만 확립한다고 잘못 아시고 계시는 거죠. (중략)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담분석을 할 때, 자꾸 부모가 되게 막 맨날 싸우고, 안 좋은 부

표 3. 성소수자 상담 교육에서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어려움

영역	범주	주제결집	주제
교육생 관련	교육생의 잘못된 상담 개입	성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치료 가능성을 주장함</li> <li>• 내담자의 성정체성을 바꾸고 싶어함</li> </ul>
		잘못된 사례개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목표를 '성소수자가 된 원인 탐색'으로 설정</li> <li>• 사례개념화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드러남</li> </ul>
		내담자에게 가치관을 강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가치관만 옳다고 믿음</li> <li>•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함</li> </ul>
	준비되지 않은 교육생	교육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면을 성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li> <li>• 거부반응과 방어적인 태도를 보임</li> </ul>
		성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에서 성소수자 관련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움</li> <li>• 상담자의 옹호 역할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함</li> </ul>
		성소수자를 다 안다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소수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함</li> <li>• 성소수자의 경험을 모두 이해한다는 반응</li> </ul>
	교육생의 관련 지식 부족과 다양성	교육 내용을 어려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주제와 관련 용어를 낯설어 함</li> <li>• 관련 지식 설명을 어려워 함</li> </ul>
		관련 교육/상담 경험이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소수자 관련 기본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음</li> <li>• 성소수자 상담 경험이 부족함</li> <li>• 성(sexuality)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li> </ul>
		선지식/경험 수준이 다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하고 있는 지식 수준이 다양함</li> <li>• 관련 교육/상담 경험 수준이 다양함</li> </ul>
	교육생의 부정적 표현과 반응	교육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내용에 대해 불쾌함과 불편함을 표현함</li> <li>• 교육자의 멘트에 대해 공격하거나 항의함</li> </ul>
		교육과정 중 성소수자에 혐오를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치 않은 순간에 혐오 발언을 표현함</li> <li>•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표현함</li> </ul>
		교육 이후 내적 혼란감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자의 옹호 역할에 대해 혼란스러워 함</li> <li>• 편견이 있는 스스로에 대해 죄책감을 가짐</li> <li>• 종교적 가치관 충돌을 경험함</li> </ul>
교육이 소용없는 것 같음	생각이 매우 견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으려고 함</li> <li>• 이미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확고한 구조를 가짐</li> </ul>	
	교육을 해도 태도 변화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을 한다고 태도가 형성되지 않는 것 같음</li> <li>• 태도 변화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li> </ul>	
슈퍼바이저 관련	슈퍼바이저 역할과 개인적 가치관으로 인한 갈등	슈퍼바이저로서의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적 신앙인과 상담자/슈퍼바이저로서의 가치관 통합이 어려움</li> <li>• 교육 내용과 개인적 가치관에 혼란이 있음</li> </ul>
		슈퍼바이저로서의 가치관과 좋은 사람이 되고픈 욕구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교육생의 혼란을 무마하고 싶음</li> <li>•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공격받을 만한 교육의 내용을 줄이고 싶음</li> </ul>

표 3. 성소수자 상담 교육에서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어려움

(계속)

영역	범주	주제결집	주제	
수퍼 바이저 관련	교육 내용과 역할에 대한 부담감	성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것의 부담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자체가 부담스러움</li> <li>성소수자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조심스러움</li> </ul>	
		잘 해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li> <li>교육 중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li> <li>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li> </ul>	
		너무 크게 느껴지는 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소수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 은 부담감</li> <li>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짐</li> </ul>	
	공격과 오해에 대한 염려	공격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생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li> <li>수업 내용에 대해 항의가 들어올까 염려됨</li> </ul>	
		오해 받을까봐 조심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하는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까봐 염려됨</li> <li>교육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조심스러움</li> </ul>	
	교육 내용과 방법 선택의 어려움	무엇을 교육하고 어떻게 대답할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어려움</li> <li>교육생에게 무엇을 물어봐야할지 모르겠음</li> <li>교육생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움</li> </ul>	
		최선의 교육방법을 찾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내용을 모두 모니터링하기 어려움</li> <li>교육생들의 성찰 내용은 공유하기 어려움</li> <li>강의와 상호작용을 모두 다루기 어려움</li> </ul>	
	물리적 환경 관련	교육시간 및 자료 부족	성소수자 상담 교육 시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적인 교육 내용은 교육 시간상 불가능</li> <li>교육과 자기점검을 동시에 하기에 시간 부족</li> </ul>
			성소수자 상담 교육 자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한 교육교재 및 교육자료가 부족함</li> <li>교육 관련 콘텐츠가 부족함</li> <li>교육자료에 한국 문화가 반영되지 않음</li> </ul>
		성소수자 연구 및 상담이론 미비	성소수자 연구 자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소수자 관련 연구가 부족함</li> <li>관련 사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li> </ul>
성소수자 상담이론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한 성소수자 상담 개입 모델이 없음</li> <li>성소수자 관련 이론들이 오래됨</li> <li>한국 문화에 기반한 이론이 부재함</li> </ul>	
수퍼바이저 교육 및 훈련 부족		수퍼바이저 교육 및 훈련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소수자 수퍼바이저 교육체계가 없음</li> <li>수퍼바이저도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li> </ul>	
수퍼바이저 커뮤니티 부재		수퍼바이저 커뮤니티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연구자나 교육자 커뮤니티 부재</li> <li>교육 경험을 공유할 동료 지지체계 부족</li> </ul>	

모였으면, 부모가 맨날 그렇게 불화가 있  
으니까 자녀가 동성애자가 된 것이다. 그  
러니까 부모가 화목해지면 아이들도 다  
시 바뀐다..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내담

자의 상황을 보고 이 상황 때문에 성정  
체성 문제가 생긴거야. 이런식으로 해버  
리는 거죠. (참가자1)”

### 준비되지 않은 교육생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슈퍼바이저들이 보기에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다. 슈퍼바이저들은 교육생들이 성소수자 관련 주제나 성과 관련된 교육의 내용에 대해 거부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성소수자 상담에서 상담자의 내면적 성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슈퍼바이저들은 교육생들이 성소수자 상담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성찰 작업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교육의 적절한 시기가 아닌지 고민하였다. 또한 성소수자 상담에서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담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필요성부터 교육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편 슈퍼바이저들은 성소수자 주제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교육생 뿐 아니라, 성소수자 내담자와 성소수자 상담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다는 교육생의 태도도 함께 다루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올려놓으면, 해당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하는지 미리 알잖아요.. 그러면 (성소수자를 다루는) 그날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 내용을 녹화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잘 안 듣는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제가 수업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개념 체크나 내용 체크를 좀 하는 편인데, 특히 오답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오답이 이렇게 약간.. 알고 싶지 않아서 오답인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좀 불편한 학생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수업 때에도 등글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목소리를 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참가자6)”

### 교육생의 선지식 부족과 다양성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슈퍼바이저들이 언급한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교육생들이 관련 교육의 내용이나 관련 개념, 지식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슈퍼바이저들은 이러한 선지식의 부족이 교육생들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기본 상담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고, 성소수자 관련 상담을 실제 많이 진행해보지 못하는 등의 부족한 경험들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슈퍼바이저들은 우리나라 상담 교육에서 ‘성(sexuality)’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교육이 부재함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것뿐 아니라 개인의 성적 선호나 욕구, 성적 행동, 성을 바라보는 관점 등 성과 관련된 내용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이는 성소수자 상담 교육의 기초를 이해하는데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슈퍼바이저들은 어떠한 교육생들은 관련 경험과 선지식 수준이 높기도 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렇게 선지식 수준이 다양한 경우 교육에서 어떠한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하는지 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성 정체성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기초 설명부터 필요한 교육생과 이미 성소수자 대상 상담을 수년째 하고 있는 교육생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여전히 너무 드문 주제고 그러니까 이 주제도 너무 낯선 거죠..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젠더 아이덴티티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같은 개념들도 다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기본적인 개념들도 잘 알지 못하고 어려워니까.. 그런거를 처음부터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 그 다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참가자4)”

#### 교육생의 부정적 표현과 반응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부정 정서를 경험하고 이를 슈퍼바이저에게 표현하는 경우 역시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에 포함되었다. 교육 내용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 불쾌함을 표현하거나 교육 내용과 발언에 동의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은 슈퍼바이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과 혐오적인 발언이 나타나면 슈퍼바이저들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생들이 교육 과정 이후에 교육 내용으로 인해 가치관 충돌을 경험하고, 편견이 있는 스스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에도 슈퍼바이저들은 이에 대처하기 쉽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혐오 발언의 등장이 사실 제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표현된다거나.. 혐오적인 내용을 막 표현하신다거나.. 불필요하게 자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실 줄 몰라서 당황하기도 했고, (참가자 2)”

#### 교육이 소용없는 것 같음

성소수자 상담 교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교육생과 관련된 마지막 어려움은 바로 상담 교육과 슈퍼비전이 소용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관련되었다. 상담 교육이나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교육생의 생각이 매우 견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소수자 상담의 틀이 정해져 있어 교육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다.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교육 이후에도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면 슈퍼바이저들은 상담 교육을 지속하는 의미와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짐을 보고하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채로 진행되는 것 같고.. 이러한 교육이 제일 까다로운 이유는 이게 참 진짜 잘 안 바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좀 교육을 몇 번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좀 변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 가치관이나 이런 게 정말 바뀌기 힘든 부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것 같  
아요. (참가자 7)”

### 수퍼바이저 역할과 개인적 가치관으로 인한 갈등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슈퍼바이저들이 슈퍼바이저, 즉 자신과 관련되어 경험하는 어려움에서 제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다양한 역할로부터 오는 갈등과 가치관 혼란에 대한 내용이었다. 특히 종교를 가진 슈퍼바이저들은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앙인으로서 가진 가치관과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슈퍼바이저로서 때로 혼란스러움과 통합에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생들이 혼란스럽거나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은 교육에서 빼거나 혼란을 무마하고자 ‘좋은 게 좋은 교육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종교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저 나름대로 다문화상담자로서 유능성을 길러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 종교인으로서 저의 모습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과의 관계, 이런 아이덴티티랑 성소수자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이 충돌하는 지점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교육생들에게 얼마나 자기개방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어요. 나도 계속 고민해나가는 부분이고 다뤄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개방하

는 게 어려웠거든요.” (참여자 5)

### 교육 내용과 역할에 대한 부담감

때로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슈퍼바이저들도 해당 주제의 교육 내용과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소수자 상담이라는 주제는 다른 교육의 주제보다 그 자체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관련된 사례를 소개할 때도 해당 사례가 단순히 흥미거리로 여겨지지 않아야 하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또한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슈퍼바이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책임감은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과 교육을 진행할 때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성소수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에,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역시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역할에 대한 무게에 포함되었다.

“교육할 때 제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정보도 전달하고, 상담자로서 만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하고.. 그러려면 그런 상황이나 정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알아야 하고, 정보도 자주 업데이트가 돼야 하고.. 이런 부담이 되게 있었는데.. (중략) 그리고 저도 전달하면서도 나도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진짜 다 이해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참가자 3)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가끔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특성이나 이슈의 어려움을 알다 보니까.. 우리 수련 시스템이 아직도 현실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너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중략) 어떤 슈퍼바이저들은 찾아서 찾아서 지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왔을 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슈퍼바이저를 만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저도 어깨가 무거워지고, 압도감이 전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여자 4)

#### 공격과 오해에 대한 염려

성소수자 상담 교육 슈퍼바이저들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부정적인 표현이나 공격으로 느껴지는 반응을 경험한 경우, 또다시 교육과정에서 유사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교육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교육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교육생들의 반응이 때로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교육생들이 가진 편견이나 태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슈퍼바이저’로 보여질 것에 대한 염려는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간접적으로 우회하는 발언을 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교육 내용이 예민할 수 있기에 교육생들이 슈퍼바이저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오해할 것에 대한 염려로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 또한 이러한 내용에 포함되었다.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잘못하면 오해 받을까 봐.. 아직 저도 과정 중에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대로, 그대로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죠.. (중략) 그런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믿지 않는 걸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말한 피드백에 학생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가치관의 확장이 필요한데, 그게 또 다른 쪽에서는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참여자 5)

#### 교육 내용과 방법 선택의 어려움

또한 슈퍼바이저들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교육 진행에서 쉽지 않은 주제를 언급하였다.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교육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부터, 실제로 교육생에게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혐오발언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 교육 과정 전반에서의 준비와 진행,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거와 확신이 부족하기도 하였다.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강의와 토론, 상호작용, 자기성찰 작업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어렵고, 어떠한 방법도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있다는 것 역시 슈퍼바이저에게 주요 어려움이 되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른다고 생각될 때도 있는 거 같아요. 지식적으로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슈퍼바이저가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힘

든 것도 있고.. (중략) 교육에서는 지식을 아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지식을 어디 가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웃음).. 저도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저도 잘 모르는 분야고, 어려우니까 더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죠..." (참여자 7)

### 교육시간 및 자료 부족

성소수자 상담 교육에서 슈퍼바이저들에게 가장 어려움으로 지각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상담 교육 시간 및 교육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와 토론, 성찰 작업 등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소수자 상담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교육시간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현실적 교육 상황에서는 거의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해 슈퍼바이저들은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나 교육자료, 관련 콘텐츠가 거의 없으며, 특히 한국의 상황이 고려된 교육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국내의 성소수자 경험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아카이브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일일이 찾는 게 어려웠고, 또 그 당시만 해도 관련 교재들도 거의 없었고.. 있어도 주로 번역서. 근데 번역서들은 외국의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외국자료 같은 것도 성소수자 차별 경험이라든지 상담경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질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나라 경험과는 좀 동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문화적인 독특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 자료들을 이용했어야 된다는 점에서도 어려웠어요.” (참가자5)

### 성소수자 연구 및 상담이론 미비

성소수자 상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직접적인 콘텐츠 부족뿐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와 이론이 부재하다는 것 역시 슈퍼바이저들에게는 교육 내용 준비에 어려움을 더하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론 교육에 안내할 수 있는 상담개입 모델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오래된 이론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 상담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성소수자 상담이론의 부재는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활용할만한 성소수자 이론이 충분히 없죠. 경험해보지 않은 걸 이해할 때 보통 글이나 이론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성소수자 관련 이론이 없으니까 대상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소수자 상담은 성소수자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이해할 자료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심리 발달이나 정체성 관련된 이론부터 시작해서 성소수자 상담이론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야 상담에서 개입도 이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상담은 잘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하는지가 없는 거죠.” (참가자 7)

### 수퍼바이저 교육 및 훈련 부족

수퍼바이저들은 현재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교육 과정에서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하물며, 성소수자 상담 수퍼바이저로서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전혀 없었다.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경험해본 적이 없기에 자신이 하고 있는 성소수자 상담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신이 부족하기도 하였다.

“사실 저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LGBT에 대해서 배운 적이 공식적인 교과 과목으로 배운 적은 사실 석사, 박사 통틀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교육은 워크숍이나 아니면 교육 연수 프로그램 들으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거나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아서..” (참가자 6)

### 수퍼바이저 커뮤니티 부재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수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마지막은 수퍼바이저 커뮤니티의 부재에 있었다. 성소수자 상담, 성소수자 상담 교육과 관련하여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 그룹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논의하며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부족한 상황은 수퍼바이저의 어려움을 보다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기능하였다.

“제가 상담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때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사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거. 뭔가 저희 전문가 집단에서 같이 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수업과 관련되어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뭔가 이렇게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이렇게 peer support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LGBT 상담연구회처럼 상담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연구회처럼,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뭔가 커뮤니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커뮤니티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은 사실 이 분야는 누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끔은 이렇게 헛갈리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참가자 6)

### 성소수자 상담 교육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

성소수자 상담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는 수퍼바이저들이 강의와 수퍼비전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 즉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련된 영역, 상담 교육을 받은 교육생과 관련된 영역, 상담 교육을 제공한 수퍼바이저와 관련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영역과 관련된 범주와 주제결집은 교육 내용과 방법 영역에서 4개 범주, 10개 주제결집, 교육생 관련 영역에서 3개 범주, 7개 주제결집, 수퍼바이저 관련 영역에서 3개 범주, 8

표 4. 성 소수자 상담 교육에서 슈퍼바이저의 어려움 대처

영역	범주	주제결집	주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내용을 유연하게 변경	교육생 수준에 따른 내용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전 참여자 기본지식 수준을 미리 파악</li> <li>교육생 경험과 상황에 따라 교육 내용을 맞춤</li> <li>수강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교육의 내용을 조절함</li> </ul>
		교육생 요구에 따른 내용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생들이 가진 걱정을 중심으로 교육</li> <li>교육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교육</li> <li>수퍼비전에서 도움받고 싶은 점을 구체화하여 교육</li> </ul>
		교육 내용의 선택과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간 내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만 교육 내용 선택</li> <li>교육과정 내 전달 가능한 내용으로 교육 압축</li> <li>성찰, 상호작용 과정들은 현실 가능 수준에서 교육</li> </ul>
	자료를 찾고 교육자료를 개발함	관련 자료를 찾아서 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학문적 논의 자료/책/연구를 찾아 공부</li> <li>관련 모임, 축제 등에 참가하고 관련 자료 조사</li> <li>관련 최신 기사와 정보에 접근하려는 노력</li> </ul>
		교육자료 개발과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를 모아 교육자료를 개발함</li> <li>교육 내용에 확신이 될 근거를 포함하고자 함</li> <li>관련 최신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li> </ul>
		학습자료와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된 책/영상을 통해 각자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li> <li>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성찰 과제 제시</li> </ul>
		다양한 사례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사례를 찾고, 예시를 들어 설명을 보완</li> <li>교육생들로 하여금 성소수자 사례에 익숙해지도록 함</li> </ul>
	성소수자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 진행	성소수자 경험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소수자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노력</li> <li>성소수자의 경험과 정서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li> </ul>
		성소수자와 함께 교육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가 있는 성소수자와 함께 강의</li> <li>성소수자 특강을 교육 내용에 포함</li> </ul>
		교육 과정 규칙 명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 내 토론 규칙을 수강생들과 함께 만들기</li> <li>교육과정 내 혐오, 차별 발언 금지 규칙 강조</li> <li>공격보다 존중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규칙 마련</li> </ul>
교육생 관련	교육생 준비도 점검	교육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반에 교육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언급함</li> <li>성소수자 문제를 다문화상담의 후반부에 배치</li> <li>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교육하는데 초점을 둠</li> </ul>
		준비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소수자 상담을 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함을 알림</li> <li>수강생이 준비가 되었을 때 상담해도 됨을 안내</li> </ul>
	교육생의 표현을 독려하고, 경험을 타당화함	편안하게 표현 가능한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li> <li>교육생이 경험하는 불편함을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li> </ul>
		교육생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생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li> <li>교육생의 반응이 어떠한 맥락 속에 있는지 확인</li> <li>교육생의 낯설과 불편함, 저항을 이해하려고 노력</li> </ul>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퍼바이저의 경험과 고민을 진솔하게 개방함</li> <li>수퍼바이저도 한계가 있고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li> </ul>

표 4. 성 소수자 상담 교육에서 슈퍼바이저의 어려움 대처

(계속)

영역	범주	주제결집	주제
교육생 관련	교육생의 내적 작업을 통한 태도 형성 노력	상담자의 역할과 태도를 명확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자의 직업적 역할을 분명히 함</li> <li>•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소명 의식 강조</li> <li>• 개인 가치관과 학회 가치관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도움</li> </ul>
		교육생의 성찰을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생 혼란에 정답을 주지 않고 성찰기회를 제공</li> <li>• 교육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내면을 보도록 질문</li> <li>• 성찰할 수 있는 화두를 지속적으로 던짐</li> </ul>
수퍼바이저 관련	수퍼바이저 역할과 책임감을 명료화	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목표와 수퍼바이저의 역할을 생각함</li> <li>• 수퍼바이저로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함</li> </ul>
		수퍼바이저로서의 책임감 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가 적다고 해도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li> <li>• 성소수자 교육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li> </ul>
		수퍼바이저의 한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퍼바이저도 다 알 수 없음을 수용</li> <li>• 함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모르는 것을 같이 찾아봄</li> </ul>
수퍼바이저 관련	내적 혼란과 정서 해결 노력	개인적 가치관 혼란에 대한 답을 찾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소수자 대상 종교 지도자 입장을 찾아봄</li> <li>• 종교적 가치관과 상담자적 가치관을 동시에 포용하려 함</li> <li>• 가치관 통합에 유연성을 가지고자 함</li> </ul>
		교육과정 중 경험한 부정 정서를 조절하려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나 당황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자 함</li> <li>• 교육과정 중 부정적 정서가 생길 때 혼자 성찰하고자 함</li> </ul>
수퍼바이저 관련	지지 체계 활용	고민을 나누고 서로 독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고민을 나눔</li> <li>•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낌</li> <li>• 교육자로서 공통적인 챌린지를 가지고 있음을 독려</li> </ul>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함</li> <li>• 다양한 배경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 함</li> </ul>
		멘토링과 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멘토를 만나서 현실적인 대처방법을 논의함</li> <li>• 좋은 수퍼바이저의 행동을 닮으려 노력</li> <li>• 종교 지도자와 이야기 함</li> </ul>

개 주제결집으로 분석되었다. 각 범주와 주제 결집, 그리고 주제의 대표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교육 내용을 유연하게 변경**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수퍼바이저들은 교육 내용을 교육생의 특성과 교육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교육이 시작되기 전 교육생들이 가진 기본지식과 선수강교육을

확인하고, 교육생의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 내용을 선별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생들의 이해와 반응을 살펴보면서 교육 내용을 조절하였다. 교육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수퍼비전에 도움을 받고 싶은 점을 구체화하여,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교육생의 요구에 충실하게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수퍼바이저들은 교육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어려움을 교육 내용과 방법의 선택과 포기

대처하였는데, 교육시간 내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강의와 토론, 성찰 작업의 진행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러한 대처에서 중요하였다.

“교육에서 이제 뭔가 학생들의 상황을 살피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 거기에 공을 들이는 거가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중략)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걸 더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뭘 알려줘야 하는지가 뭉치뭉치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건 좀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거는 더 길게 교육하기도 하고요... 예컨대 처음에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섹슈얼리티 관련, 젠더 관련 용어를 이렇게 꼭 다 설명했었는데, 학생들이 사실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관심도 없고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각자 스티디를 할 수 있는 정보처를 알려주는 차원으로 해도 되겠다. 대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걸 성찰하는 쪽을 좀 더 강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동해 나간다가 왜냐하면 같은 시간 내에 분배를 해야 되니까요.” (참가자 4)

#### 자료를 찾고 교육자료를 개발함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슈퍼바이저들은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관련 상담 모델이나 이론뿐 아니라 혐오와 차별, 편견, 다문화와 같은 부분에서도 논의되어 있는 자료를 찾고, 영상, 책, 연구물

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관련 모임이나 축제, 학회 등에 참여하고, 최신 기사나 정보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사회적 변화와 발생하는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의 흐름을 이해하고, 최신 정보를 활용하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교육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활용가능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과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저는 계속 노력하는 게, 교육 ppt를 수없이 계속 업데이트도 시키고.. 최신 뉴스라든지 그런 데서도 교육 내용에 넣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많이 넣으려고 하는 편이고.. (중략) 그리고 관련된 자료도 어떤 거든지.. 그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라는 책이랑 그거는 이제 평등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센터랑 그 인권교사 모임 쌤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예 고런 책에 있는 내용이.. 퀴어 축제라거나 이런 거 참여하면서 조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당사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가능한 많이 참고해서 알려주는 거죠..” (참가자 1)

#### 성 소수자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 진행

대부분의 슈퍼바이저들은 교육생들이 성소수자들의 삶과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육생들이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오해와 편견이 생기게 되고, 상담에의 방향성과 개입이 적절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퍼바이저들은 교육생들이 성소수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안내하고, 성소수자의 이야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성소수자 입장에서 듣고 싶은 내용과 성소수자들의 정서 경험을 강조하여 전달하고자 하였다. 때로는 성소수자와 함께 강의를 하거나 특강 기회를 마련하여 교육생들이 성소수자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강의를 할 때 저는 이제 성소수자 상담 사례도 일부터 좀 많이 넣거든요. 상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또 그 경험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겹더라도 계속 듣고, 접하고.. 내담자들 얘기도 좀 듣고, 상담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례도 좀 듣고 하면, 교육생들이 오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참가자 1)

#### 교육 과정 규칙 명료화

수퍼바이저들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혐오 발언이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택한 대처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교육과정 진행에서의 규칙을 정하고 명료화하는 것이다.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비난과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등의 규칙을 교육생들과 함께 정하고, 실제 교육과정에서 해당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상담 진행 과정뿐 아니라 교육 장면에서도 ‘의도와 상관없이 소수자에게 적대적 혹은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욕과 무시(Sue et al., 2007)’인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 aggression)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토론할 수 있는지 모델링하고 주의사항을 점검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다양한 생각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된 비난이나 혐오가 이루어지는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혐오나 차별 발언은 금지, 안 된다, 이런 선을 분명히 하는 원칙들을 강조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비난이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그런 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몰랐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원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참가자 2)

#### 교육생 준비도 점검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한 수퍼비전과 교육을 진행하는 수퍼바이저들이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노력 중 교육생과 관련한 첫 번째 내용은 교육에 앞서 교육생의 준비도를 확인하는 것에 있었다. 많은 교육생들은 성, 성소수자, 성소수자 상담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수퍼바이저들은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의 내용을 수강하고 수용할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육의 초반에 교육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언급하고 기초적인 지

식 내용을 먼저 다루면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문화의 다양한 이슈가 있는 교육장면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후반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상담을 하는 모든 상담자가 성소수자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준비가 되었을 때 상담을 해도 괜찮을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교육생이 성소수자 상담에 있어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저는 학기 초부터 계속 각자가 사회의 이슈들이나 자기에게 당연한 것들.. 같은 주제를 많이 다루는 거 같아요.. 수업 앞부분에 리허설처럼 그런 것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구조적인 부분들부터 개인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작업.. 아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네. 이런 작업을 조금 하고 나면 그게 각 대상에게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조금 안전한 상황에서 간접적인 활동들을 시작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준비를 하고 그런 수업들을 듣게 되면 훨씬 덜 불편하게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참가자3)

#### **교육생의 표현을 독려하고, 경험을 타당화 함**

수퍼바이저들은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들을 교육과정에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먼저,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편함을 표현 가능한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토론의 기회를 가능한 많이 만들고, 수퍼바이저 역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생들 역시 진솔하게 자신의 정서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생들의 다양한 감정과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교육생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존중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육생들이 교육의 내용에 대해 저항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으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비난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애썼다. 수퍼바이저들이 경험해왔던 정서와 생각에 대해 개방하고, 교육생이나 수퍼바이저 역시 실수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 역시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저는 수퍼비전이나 교육에서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성소수자는 상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주입식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도 이런 부분 좀 불편할 때가 있던데 너희는 어때니?’ 그래서 이게 좀 소통이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불편한 사람도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도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정말 세상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요.’도 오픈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참가자 7)

“이제는 저도 이해가 가요. 성소수자 상담 교육 받으면서, 낯설고 불편하다.. 전혀 몰랐던 거니까, 어디서든 교육을 안 해줬으니. 저도 몰랐었으니깐요. 어디 학

교에서도 이런 거 교육해 준 데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모를 수 있겠다. 그러면 낯설어하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저한테 속에서는 너무 낯설고 불편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담사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다. 예. 계속 듣다 보면 또 이해가 가고 저런 감정일 수도 있겠다고 또 말하기도 해요.” (참가자1)

#### 교육생의 내적 작업을 통한 태도 형성 노력

성소수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내적 작업 형성은 교육과정의 주요 초점이자, 슈퍼바이저들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향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인 상담 과정 및 성소수자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과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교육생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학회의 가치관이 통합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또한 성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한 화두를 던져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육생의 질문이 있을 때 바로 답을 주기보다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게 하거나, 관련 내용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는 과정으로 활용하였다. 성찰 작업의 중요성과 성찰의 독려를 통해 교육생들이 성소수자와 진솔하게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인이 걸림돌이 되는 어떤 요소들이 딱 건드려졌는데 거기서 안 움직일 때는, 저는 그냥 사례 잡고 얘기해요.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거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다고 해야 하나.. 거기에 더해서 스스로의 태도가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좀 비춰주는 편인데요. 물론 그 자리에서 뭔가 태도가 확 바뀌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런 질문을 받아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과제를 주기도 하고..” (참가자 7)

#### 슈퍼바이저 역할과 책임감을 명료화

성소수자 상담을 교육하는 슈퍼바이저들이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과 관련되어 노력하는 것 중 하나는 슈퍼바이저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감을 명료화하는 것에 있었다. 성소수자 상담을 교육하는 슈퍼바이저로서, 교육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지금 교육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슈퍼바이저라고 해도 아직 발달하고 있는 중이며, 모든 편견과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정하고자 하였다. 교육생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로 교육과정에서 무력감이 느껴지거나 어려움이 과도하게 느껴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을 스스로 상기시키고, 관련 교육을 계속해 나가야 할 필요성과 소명 의식을 점검하는 과정도 진행하였다.

“이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너무 나의 역할을 비대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짓눌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결 지금 하는 거다. 당장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다.” (참가자 4)

“이제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칫 비전문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한다는 거죠. 특히 성소수자가 아닌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담자를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듯이. 저도 교육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게 당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강의 중에 질문도 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들을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거를 다 아는 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나누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구요.” (참가자 3)

#### 내적 혼란과 정서 해결 노력

성소수자 상담 교육에서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개인적 혼란감과 부정적인 정서 역시 슈퍼바이저들이 대처해야 할 중요한 어려움이었다. 특히 종교적 가치관과 슈퍼바이저로서의 가치관을 통합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성경이나 설교, 종교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혼란스러움을 줄이고, 유연성과 포용력을 높이고자 노력함으로써, 가치관의 갈등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내리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경험될 수 있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표현, 전달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이 끝난 후 경험했던 정서들에 대해 스스로 내적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 역시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일단 그리고 제 자신과 관련해서도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성찰하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성찰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나.. 그리고 종교 관련해서는 종교 정체성과 다문화상담자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개인적으로 묵사념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주변에 크리스천이면서 상담자인 사람하고 얘기도 해본다든지.. 그리고 또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혼자 시간을 좀 가지면서 프로세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참가자 5)

#### 지지 체계 활용

성소수자 상담을 교육하는 슈퍼바이저들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다양한 지지 체계를 활용하는 것에 있었다. 성소수자 상담을 교육하는 과정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기에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동료와 친구들과 마음을 공유함으로써 용원을 받고자 하였다. 함께 성소수자 슈퍼비전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고민의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며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역시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다. 슈퍼바이저들은 동시에 자신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거나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만나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하였다. 슈퍼비전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슈퍼바이저 역시 적절한 혹은 적절하지 못한 모델이 되었다.

“그리고 좋은 동료랑 좋은 선생님들이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를 믿어주고 저의 교육관이나 아니면 제가 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도움이 됐죠. (중략)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그룹이나 집단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제가 딱 생각난 거는 저의 슈퍼바이저 선생님들. 다양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힘들지만 나를 알아주고 내 의도가 뭐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가자 8)

## 논 의

본 연구는 성소수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슈퍼비전과 교육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들의 교육경험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소수자 상담 슈퍼바이저들이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초점을 두는 내용, 교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소수자 상담 슈퍼바이저들은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성소수자 관련 용어나 발달, 차별,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지식을 교육하고,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상담자들이 성소수자 상담에서 민감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태도를 안내하고, 이러한 태도가 실제 교육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내적 작업을 촉진하였다. 또한 성소수자 상담에서 주요한 주제와 관련하여 실제 내담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교육하고자 하였다.

Bidell(2017)와 Sue et al.(1982) 등에 따르면 성소수자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은 자신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태도에 대한 자각, 성소수자 상담에 필요한 기술, 성소수자와 그 문화에 관련된 지식이다. 국내에서도 성소수자 상담에 필요한 상담역량이 LGBT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이슈 관련 지식, 성소수자 상담 시 필요한 기술과 유능감, 성소수자에 대한 자기인식과 태도의 영역으로 제안되었다(이주영 등, 2020).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성소수자 상담을 교육하는 슈퍼바이저들은 크게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한 지식, 태도, 기술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떠한 지식을 교육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활용가능한 기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상담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지식교육은 관련 용어나 개념, 문화와 차별·편견, 관련 이슈,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내용, 정체성 발달, 인권과 윤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상담자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담의 역할과 태도를 안내하고,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실제로 자신의 인식과 편견을 점검하고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상담의 구체적인 기

술 교육에는 성소수자의 문화적 배경과 개별성 및 다양성을 강조한 사례개념화, 커밍아웃이나 차별에 대한 옹호 개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교육 초점 내용은, 성소수자 상담자 교육과 훈련 양성 과정에 어떠한 교육 구성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방향성을 제공하며, 성소수자 상담의 수퍼바이저 훈련에도 어떠한 교육의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성소수자 상담 교육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서 ‘내적 작업’은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도출되었다. 수퍼바이저들이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들이 경각심과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성소수자를 만나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식과 편견을 점검할 수 있는 성찰 작업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상담 교육에서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교육생들의 성찰을 독려하고 가치관을 통합하며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초점과 대처는 상담자 발달과 상담 교육에 있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과 성찰을 통한 작업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 상담을 위한 교육에서 교육생의 내적 성찰을 강조한다는 결과는 상담자의 성찰적 인식이 상담자 발달의 핵심 기제 중 하나이기에 상담자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성찰 과정을 포함한 수퍼비전 제공이 중요하다는 제언(Ward, & House, 1998)을 강조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성찰 작업은 상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인지적 조절 과정을 통해 발달해나갈 수

있는 기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초심상담자의 발달과정에 매우 중요하다(최현국, 2020). 성소수자 상담에 있어, 상담자의 태도와 편견은 상담의 방향성 설정과 상담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Davison, 2005; 우사라, 유성경, 2017), 내담자에게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 aggression)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Shelton, & Delgado-Romero, 2011), 성소수자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내적 태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선편견과 태도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찰하는 작업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성소수자 상담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자 자신의 편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서영석 등, 2007)이나 실제 상담을 경험한 내담자들이 상담자로부터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김혜민, 유금란, 2021) 역시 성소수자 상담자들의 태도와 그를 위한 성찰 작업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결과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어떠한’ 성찰 작업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먼저 상담자들이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된 교육이나 논의, 상담자 옹호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준비도를 파악한다. 또한 교육생인 상담자의 가치관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교를 포함한 개인적 가치관과 상담자로서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각 가치관들이 어떻게 통합되고 수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담자의 배경과 문화를 확인하고, 해당 문화에서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이러한 문화와 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에 더해 이러한 성찰 작업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시사한다. 교육생의 혼란과 질문에 바로 정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답을 내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성과 관련한 편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질문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안내하고, 성찰 과정의 내용을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며, 화두를 지속적으로 던짐으로써 계속적인 성찰을 마련할 수 있다. 성찰 과정 자체를 독려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자 하는 슈퍼바이저들의 대처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서 교육생과 관련된 내용은 상당수 성소수자 상담 훈련과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슈퍼바이저들은 교육생들이 성소수자 교육과 상담 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선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며 교육의 내용을 낯설고 어려워한다고 느꼈다. 이러한 교육생들의 특성은 슈퍼바이저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또한 훈련의 부족은 사례개념화를 적절하게 하지 않는 등의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내담자의 성격 지향을 바꾸고자 하는 태도 등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어려움과 현상은 우리나라 상담자 훈련 과정에서 성소수자 상담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제안들(김혜민, 유금란, 2021; 우사라, 유성경, 2017), 실제 성소수자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들이 ‘성소수자 상담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고’, ‘적절한 상담 슈퍼비전을 받기 어려웠으며’, ‘성소수자 내담자가 낯선’ 경험을 했다는 연구결과(유하은, 권경인, 2020)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자들은

미국심리학회(APA)가 인준한 모든 상담심리 프로그램에 다문화와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국외 프로그램(김은하 등, 2019)처럼 국내에서도 다문화와 성소수자 상담의 훈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된 체계적 교육의 부재가 당장의 지식이나 기술 습득의 미비뿐 아니라 슈퍼비전 등의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의 효과까지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된 교육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 성,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한 교육에의 준비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슈퍼비전과 관련하여 교육생 차원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슈퍼바이저들의 노력에서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경험이다. 낯선 주제와 대상, 경험과 지식이 적은 상담 영역, 교육의 내용으로부터 혼란감과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교육생들은 교육생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저에게도 교육 진행의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슈퍼바이저들은 이러한 교육생의 경험을 교육생 스스로의 몫으로만 두지 않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상담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성소수자 상담을 비롯한 다문화상담에서 상담자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Sue et al., 1992), 기존의 가치관의 혼란이나 태도 변경으로 인한 저항, 혹은 갈등 역시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서 경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교육생의 맥락과 문화 속에서는 충

분히 그럴 수 있음을 이해하는 타당화는 교육생의 준비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성찰을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자신의 경험을 수용하도록 돕고 안정된 자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타당화의 효과(Linehan, 1997)가 내담자뿐 아니라 교육생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서 경험에 대한 타당화는 과도한 각성을 감소시켜 새로운 학습과 행동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한다는 제언(Lynch et al., 2006)은 교육생들이 낯설고 혼란 등의 부정정서에 몰입되지 않고, 교육과 슈퍼비전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바이저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나 슈퍼비전 내용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은 조심스러움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 부담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담 교육 과정에서 오해를 받거나 교육 내용에 항의를 받을까봐 염려하고 조심스러워 하기도 했다. 이는 초보 슈퍼바이저들이 불안을 경험하고 슈퍼비전과 관련된 자신감을 발달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는 연구(Watkins, 2013)나 상담과 슈퍼비전 차이로 인한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슈퍼바이저로서의 정체성 모호함을 경험한다는 연구(오효정, 최한나, 2015)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또한 슈퍼바이저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종교적 가치관과 슈퍼바이저로서의 가치관 혼란이나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및 회피에 대한 갈등과 같은 어려움은 기존의 슈퍼바이저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소수자 상담 슈퍼바이저 교

육의 차별적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슈퍼바이저가 관련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지고 교육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 및 훈련은 매우 부재되어 있다(장세미, 장성숙, 2016; Watkins, 2012). 최근 학교의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슈퍼비전을 훈련, 양성하는 교육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이소연 등, 2014), 슈퍼비전 교육에 대한 요구도도 분석되고 있으나(최서운, 최한나, 2019), 성소수자 상담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슈퍼바이저 교육 및 훈련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상담 현장에서의 요구와 환경이 다를 때 슈퍼비전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김영진, 왕은자, 2017)에 기초해보면, 상담의 영역이나 주제가 다를 때 해당 주제의 슈퍼바이저 교육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상담 슈퍼비전이 어떠한 교육 내용을 토대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지를 제언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슈퍼바이저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정서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할 때 경험하는 종교인으로서의 갈등이나 ‘슈퍼바이저를 겨우 찾아서 사례를 가지고 오는’ 슈퍼바이저를 만났을 때의 부담감, 교육생들이 저항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조심스러움-은 성소수자 상담 슈퍼바이저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차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의 슈퍼비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슈퍼바이저의 시각에서 진행되었으며, 슈퍼바이저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들(소수연, 장성숙, 2014; Majcher, & Daniluk, 2009)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슈퍼바이저 경험을 심층적으로 확인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특히 본 연구처럼 특정한 상담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슈퍼바이저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성소수자 내담자의 증가와 성소수자 상담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성소수자 상담 교육 및 슈퍼비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상담 주제가 다를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슈퍼바이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나(손현동, 2007), 특정 상담 주제를 다루는 슈퍼바이저는 일반적인 상담 주제를 다루는 슈퍼바이저와 다른 경험을 할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조은희, 천성문, 2021)에 기초했을 때,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소수자 상담 슈퍼바이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인 현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한국의 슈퍼바이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Bang, & Park, 2009)과 한국에서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화가 다른 문화권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서영석 등, 2007)을 고려했을 때 더욱 커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상담 교육과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슈퍼바이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더해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처 경험의 확인은 성소수자 상담 슈퍼바이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상담 경력과 교육경력이 많은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성소수자 상담 교육과 슈퍼비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

다’는 어려움을 경험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성소수자 상담 슈퍼바이저들에게 직접적인 안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생, 그리고 슈퍼바이저 관련된 영역에서 어떠한 대처가 유용할 수 있었는지 분석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성소수자 상담 슈퍼바이저의 교육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성소수자 상담자를 위한 교육의 방법과 내용, 성소수자 상담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과 태도, 나아가 슈퍼바이저가 경험할 수 있는 갈등을 성찰할 수 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충분한 지지 체계와 멘토링을 제공하고, 관심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의 장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상담자의 발달과정처럼 슈퍼바이저 역시 발달과정이 있다. 대표적인 슈퍼바이저 발달 모델들(Stoltenberg, 2005; Watkins, 1995)은 슈퍼바이저가 발달하고 숙련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과제,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안내한다. 성소수자 상담 슈퍼바이저 역시 경력과 발달단계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처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상담 슈퍼바이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점에 기초하여 연구 참여자의 슈퍼바이저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유한 성소수자 상담 경력, 성소수자 상담 교육 및 슈퍼비전 경력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분석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슈퍼바이저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유사한 발달과정의 심층

적인 경험을 분석하거나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상담 교육과 수퍼비전 경험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 역시 상담 교육의 일환(장세미, 장성숙, 2016)으로 파악하여, 강의 등의 상담 교육과 수퍼비전 방식 교육의 공통적 특성에 기반하여 수퍼바이저 경험을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인 연구대상자 모집의 어려움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수퍼바이저가 ‘성소수자 상담에 대해서 적절한 수퍼비전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호소했던 연구결과(유하은, 권경인, 2020)처럼, 실제 성소수자 상담 교육과 수퍼비전을 진행하고 있는 수퍼바이저를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 역시 강의나 워크숍,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진행했거나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수퍼비전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강의 경험은 5시간으로 짧거나 수퍼비전 경험이 없는 경우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주로 1대 다수로 진행되는 상담 교육과 1대 소수 혹은 1대 1로 진행되는 수퍼비전은 전달 방식, 교육생과의 관계, 교육생의 기대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같은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방식에 따른 어려움과 대처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적 성과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영진, 왕은자 (2017). 기업상담자의 수퍼비전

교육 내용 요구에 대한 탐색. 상담학연구, 18(5), 403-421.

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상담전공대학 원생을 위한 다문화상담 교과 과정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21-1364.

김주찬 (2016). 탈북민 전문상담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퍼비전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6, 33-55.

김혜민, 유금란 (2021). LGB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501-1526.

박준호, Gerstein, L., & Miller, D. (2014). 대학생 동성애 상담: 상담자 훈련을 위한 체계적 모델의 활용. 인간이해, 35(1), 53-71.

서영석, 이정림, 강제희, 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13-237.

소수연, 장성숙 (2014). 숙련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193-222.

손현동 (2007). 학교상담 수퍼비전 모형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효정, 최한나 (2015). 초보 수퍼바이저가 겪는 어려움과 대처방법. 상담학연구, 16(5), 75-94.

우사라, 유성경 (201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11-334.

유하은, 권경인 (2020). 성소수자(LGBT) 상담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간이해, 41(1), 91-115.

- 이소연, 최바울, 이정선, 서영석 (2014). 슈퍼바이저가 경험한 상담수련생의 전문적 역량의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45-270.
- 이주영, 윤은희, 이아라 (2020). 한국 상담자의 LGBT 내담자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21(2), 339-359.
- 이주영, 이아라, 윤은희 (2020). 성소수자 내담자 대상 상담에서 상담자가 인식하는 어려움과 도움요인. *아시아교육연구*, 21(2), 577-612.
- 장세미, 장성숙 (2016). 상담 슈퍼바이저 교육과 훈련 요소 연구: 슈퍼바이저 발달요인과 슈퍼바이저 역량 요인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4), 488-502.
- 조은희, 천성문 (2021). 청소년상담 슈퍼바이저 발달과정. *상담학연구*, 22(4), 289-326.
- 주은선, 이현정 (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상담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17-846.
- 최서윤, 최한나 (2019). 초심 슈퍼바이저 교육에 대한 요구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119-1138.
- 최현국 (2020). 상담자 전문성 발달과 상담 교육 실태에 관한 고찰. *상담심리교육복지*, 7(2), 199-223.
- Adams, J., Dickinson, P., & Asiasiga, L. (2013). Mental health issues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Promotion*, 15(2), 105-120.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05). *ACA code of ethics*. Alexandria, VA: Author.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American Psychologist*, 67, 10-42. doi:10.1037/a0024659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70, 832-864. doi:10.1037/a0039906
- Andrew, A. M., Louis G. C., & Benjamin, D. L. (2011). Sexual orientation minorities in college counseling: Prevalence, distress, and symptom profile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4(2), 127-142.
- Associ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Counseling (ALGBTIC). (2013). ALGBTIC issues in counseling competencies for counseling with lesbian, gay, bisexual, queer, questioning, intersex, and ally individuals.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7, 2-43. doi:10.1080/15538605.2013.755444
- Associ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Counseling. (2010).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competencies for counseling with transgender clients.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4, 135-159. doi:10.1080/15538605.2010.524839
- Bang, K., & Park, J. (2009). Korean supervisors' experiences in clinical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8), 1042-1075.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9).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Bidell, M. P. (2017). The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development of clinical skills

- scale(LGBT-DOCSS): Establishing a new interdisciplinary self-assessment for health providers. *Journal of Homosexuality*, 64(10), 1432-1460.
- Bidell, M. P., & Stepleman, L. M. (2017).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linical competence, professional training, and ethical care: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Journal of homosexuality*, 64(10), 1305-1329.
- Bidell, M. P., & Whitman, J. S. (2013). A review of lesbian, gay, and bisexual affirmative counseling assessments. *Counseling Outcome Research and Evaluation*, 4, 112-126.
- Bowers, R., Minichiello, V., & Plummer, D. (2010). Religious attitudes, homophobia, and professional counseling.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4, 70-91.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son, G. C. (2005). Issues and nonissues in the gay-affirmative treatment of patients who are gay, lesbian, or bisexual.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2(1), 25-28.
- Grunhaus, C. M., Tuazon, V. E., Gonzalez, E., & Wagner, N. J. (2018). A counselor education case study: The counselor values based conflict model in action. *Counseling and Values*, 63(2), 164-179.
- House, A. S., Van Horn, E., Coppeans, C., & Stepleman, L. M. (2011). Interpersonal trauma and discriminatory events as predictors of suicidal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gay,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persons. *Traumatology*, 17, 75-85.
- Institute of Medicine (IOM). (2011). *The health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Building a founda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Retrieved from <https://www.nap.edu/catalog/13128/the-health-of-lesbian-gay-bisexual-and-transgender-people-building>.
- King, M., Semlyen, J., & Tai, S. S. (2008). A systematic review of mental disorder, suicide, and deliberate self harm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BMC Psychiatry*, 8, 70-87.
- Linehan, M. M. (1997). Validation and psychotherapy. In A. C. Bohart & L. S. Greenberg (Eds.), *Empathy reconsidered: New directions in psychotherapy* (pp. 353-39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ynch, T. R., Champman, A. L., Rosenthal, M. Z., Kuo, J. R., & Linehan, M. M. (2006). Mechanisms of change in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Theoretical and empirical observa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4), 459-480.
- Majcher, J. A., & Daniluk, J. C. (2009). The process of becoming a supervisor for students in a doctoral supervision training course.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3(2), 63-71.
- Miller, D., Park, J., & Gerstein, L. (2012). Enhancing counselors' competencies with LGB clients: Introducing a systemic model. In J. Park, & L. Gerstein (Co-chairs), *Enhancing counselors' competencies with LGBT clients: Revisiting implicit valu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 Psychological Association, Orlando, FL.
- Miller, K. L., Miller, S. M., & Stull, J. C. (2007). Predictors of counselor educators' cultural discriminatory behavi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 325-336.
- Palma, T., & Stanley, J. (2002). Effective counseling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5*, 74-89.
- Rutter, P. A., Estrada, D., Ferguson, L. K., & Diggs, G. A. (2008). Sexual orientation and counselor competency: The impact of training on enhancing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2*(2), 109-125.
- Shelton, K., & Delgado-Romero, E. A. (2011).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The experience of lesbian, gay, bisexual, and queer client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210-221.
- Stoltenberg, C. D. (2005). Enhancing professional competence through developmental approaches to supervision. *American Psychologist, 60*, 857-864.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0*(2), 64-88.
- Sue, D. W., Bernier, J. E., Durrant, A., Felnberg, L., Pedersen, P. B., Smith, E. J., & Vasquez-Nuttall, E. (1982). Position paper: Cross-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2), 45-52.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M. B., Nadal, K. L.,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 Ward, C., & House, R. E. (1998). Counseling supervision: A reflective model.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1), 23-34.
- Watkins, C. E. (1995). Psychotherapy supervisor and supervisee: Developmental models and research nine years lat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 647-680.
- Watkins, C. E. (2012). Educating psychotherapy supervisor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66*(3), 279-307.
- Watkins, C. E. (2013). Being and becoming a psychotherapy supervisor: The crucial triad of learning difficultie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67*(2), 135-151.
- Whitman, J. S., & Bidell, M. P. (2014). Affirmative lesbian, gay, and bisexual counselor education and religious beliefs: How do we bridge the gap?.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2*(2), 162-169.

원고접수일 : 2022. 09. 29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2. 07

게재결정일 : 2023. 05. 03

## Supervisors'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in Sexual Minority Counseling Education

Lee A Ra<sup>1)</sup>

Lee Juyoung<sup>2)</sup>

<sup>1)</sup>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 BK4program

<sup>2)</sup>Dankook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supervisors providing sexual minority counseling education to counselors experience and how they cope with these challenge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supervisors or educators who provide education or supervision for LGBTQ+ counseli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s a result, supervisors faced difficulties due to trainee's negative response to the training or lack of preparation, the selection of education content, experiencing role burden, and a dearth of counseling theories, educational materials, and relevant training. To cope with these difficulties, supervisors adopted coping strategies such as flexible adjustment of educational content, development of personalized educational materials, establishment of clear rules in lecture, validation of trainees' experiences, cultivation of attitudes through introspective work, and the pursuit of their own values and ro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underscore the specific needs of supervisors engaged in counselor education. Implication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LGBTQ+ counseling, education for LGBTQ+ counseling, supervision, supervisor difficulties, supervisor strategies